

■ 법률 칼럼

영주권 갱신과 범죄 기록

최근 이민국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영주권 갱신을 준비하는 사람들 가운데 범죄 경력이 영주권 갱신 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영주권 갱신은 현재 본인이 영주권자라는 것만 증명하기만 하면 별 문제 없이 갱신이 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에게 심각한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 영주권 갱신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가정폭력, 아동학대, 살인, 심각한 상해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 절차와 별개로 갱신 신청자에게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가 발부되어 추방재판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영주권 갱신을 하는 경우, 본인이 관련된 범죄가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1996년에 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미국 입국 후 (또는 영주권을 받은 후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유기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시민권자를 제외한 누구나가 경/중범죄를 불문하고 실형 여부에 관계없이 추방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개정 이민법이 1996년 9월 30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위에 언급한 범죄가 있다면 그 범죄가 어느 시점에 저질러진 것인지를 잘 판단해 본인이 추방 대상이 되는지 따져보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범죄를 1996년 9월 30일 이후에 저질렀다면 영주권 갱신 시에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되는 범죄 (Moral Turpitude Crime)의 경우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로 영주권 갱신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범죄는 살인, 강간, 절도, 사기, 배우자 폭행, 납치, 아동학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도덕적 흠결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실제 형량이 6월 미만이고 최고 형량이 1년 미만인 Petty Crime을 제외한 그 이상의 실제 형량과 그 이상의 최고 형량이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주권 갱신 시에 추방재판의 대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은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이민국 시스템상으로 여전히 영주권자입니다. 단지 본인이 영주권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영주권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갱신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잘 참고해 영주권자가 된 이후 형사법적인 범법 사실이 있는 경우 영주권 갱신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범법 사실이 이민법상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랍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잇솔질 방법 I

지난호에서 잇솔질을 포함한 구강 위생에 대한 실태와 그와 연관된 권장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 잇솔질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면 될 지 알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 문헌에 나온 사실들을 바탕으로 2회에 걸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대부분 옆으로 이를 닦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위아래로 닦으라는 얘기도 많이 듣기도 했지요. 부모가 이를 닦아주던 시기를 벗어나 혼자서 이를 닦을 시기가 될 때 많은 아이들이 위아래로 칫솔을 움직이며 닦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닦는 습관이 쉽게 들도록 옆으로 닦도록 가르칩니다. 옆으로 닦는게 위 아래로 닦는 법보다 쉽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습관이 커서도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효율면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 옆으로 이를 닦는 법이고 잇몸에 상처를 쉽게 입힐 수 있는 데도 말입니다.

요즘은 많은 부모들의 치과에 대한 상식이 늘어남에 따라 위아래 수직적인 잇솔질 방법을 아이들에게 많이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상하 양방향의 잇솔질 방법이 올바른 잇솔질 법이라고 하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잇몸을 향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잇몸을 상하게 하고 치아 표면에 칫솔을 수직으로 닿게 하다보니 이가 닦이는 면적이 줄어들어 효율에 있어서도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잇몸병이나 충치가 어디에서 많이 생기나 생각해 보면 과연 어디를 중심으로 닦아야 하고 어떤 도구들이 사용될 수 있을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잇몸병이든 충치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위는 이와 이 사이이고 어금니 부분에서 많이 생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부위를 잘 닦기 어렵기 때문이죠. 누구든 이의 윗면은 특별한 기술 없이 잘 닦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잇몸과는 관계가 없죠. 잇몸병이 시작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이 부위를 잘 알면 잇몸병 예방도 어렵지 않습니다. 잇몸병은 이와 잇몸

이 만나는 부위에서 시작됩니다. 이 안쪽 이든 바깥쪽이든 이 사이든 관계없이 이와 잇몸이 만나는 부위에서 잇몸병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닦을 때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칫솔을 사용하는게 좋은지에 대해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칫솔의 경도는 중등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뾰뾰하면 잇몸에 상처를 입히기 쉽고 너무 부드러우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칫솔의 크기는 너무 크지 않아야 하고 입안 구석구석 다 도달할 수 있을 만한 크기면 좋는데 개인적으로 다소 작은 사이즈의 칫솔을 권하고 있습니다. 손잡이는 어느 정도의 강도가 있어야 하고 손으로 쥐었을 때 구강내 쉽게 칫솔을 위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손잡이가 너무 낭창거리면 적절한 힘을 칫솔에 전달하기가 어려워 잇솔질 효율이 떨어집니다.

올바른 칫솔을 고르셨다면 이제 바른 잇솔질법을 연습해 보죠. 칫솔모가 치아의 장축에 45도로 잇몸을 향하게 하고 잇몸선에 대십시오. 칫솔모의 절반은 잇몸에 놓여야하고 또다른 절반은 이에 닿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짝 눌러 준후 아주 짧게 앞뒤로 움직이며 진동 준다는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그 후 아주 서서히 잇몸선을 따라 움직여 주면서 잇몸 모든 부위를 닦아 줍니다. 피가 난다고 해도 염려마십시오. 열심히 잘 닦으면 피는 몇일내 멈춥니다. 잇몸선을 다 닦은 후 나머지 칫솔로 닦을 수 있는 모든 부위들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 부위들은 대개 특별한 기술 없이 쉽게 잘 닦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호에서는 어떻게 이와 이사이를 관리할 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동안 이를 닦아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구강 위생용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339호에서 계속됩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임플란트 수술 전문의
Garden Grove Office: (714) 530-1948
Fullerton Office: (714) 519-3832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연체세금 해결
- 법인설립
- 세무감사대행
- 해외자산보고
- 상속, 증여세금보고

방문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4128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Buena Park에서 Fullerton으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